

2021년도 제152회 정례회의  
2021. 6. 25(金) 10:00

# 5분 자유발언

「계룡시! 혁신하여 재도약으로 나아가자」

허 남 영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려 하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 152회 정례회의에서 진행한 행정사무 감사는 계룡시 제 5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계룡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전 분야에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살펴다보니 핵심분야를 깊이 있게 더 따지며 확실하게 대안을 찾고 개선책을 확정하는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①스마트시티 조기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안,

②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우리시의 역할과 참여계획,

③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방안,

④국방수도의 참모습 프로젝트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후 관련부서, 시민, 외부전문가와 함께 토론회하면서 대안을 찾고 방법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번까지 저는 일곱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습니다. 배정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은 얼마나 그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살펴왔습니다. 이렇게 회를 거듭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작성되는 수 많은 행정 문서들이 더욱 익숙해지면서 예산의 흐름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시의 행정서비스는 따뜻하게 집행되어야 하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는 줄이 달고 힘이 있어 쉽게 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살던 곳에서도 집을 짓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한다.”는 등의 말들이 많다면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7년 간의 시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본 우리시의 행정 서비스는 시민 모두가 가슴설레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부족했고, 신뢰도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방수도라는 말에 걸맞는 우리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참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계룡시에 살고 있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은 역량을 갖추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며 재도약을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품고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의 운영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의 행정시스템에도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함께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으론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사에 세계 4강 신화를 가져왔던 2002월드컵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던 해에 함께 외치며 가슴 설레던 언어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함께 응원하자는 것이었지요. 여기 계신 분부터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함께하여 ‘굽은 길은 펴고, 막힌 길은 뚫고, 끊긴 길은 이어야 하며 터진 곳은 막아서’ 어느 곳이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시는 재도약 하여 으뜸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하며 국민 모두가 열정적으로 외쳤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꿈은 이루어진다.’